



싱콩國 寓話의 뒷 얘기

盧 隆 熙

〈本協會理事〉

(서울大學校環境大學院 教授)

「싱콩」(Singkong)은 다섯차례나 거듭된 軍事革命으로 마비된 母國에서 1970년에 분리되어 獨立한 신생국가이다. 「싱콩」사람들은 活氣에 넘치고 부지런하며 「經濟成長」이라는 宗教를 믿고 있어 게으르고 「地域間의 均衡成長」이라는 宗教를 신봉하는 母國人들과는 대조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의 母國을 이탈해서 신생독립국가가 되어야 겠다고 절기한 직접적인 계기는 母國이 채택한 「國家建設綜合計劃」의 발표였다. 均衡成長을 目標로 삼고 있는 동 계획에 밝혀진 내용에는 「싱콩」地域이 全國人口의 30%를 차지하고 全國富의 50%를 生産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기간중 投資되는 開發算算의 5%만이 配定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천평방마일의 비좁은 領土와 대부분 都市人口인 500만이 人口를 지닌 「싱콩」정부는 金本位自由落임을 國內外에 宣布하고 新生獨立國家를 「都市社會」처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外國資本의 導入을 위한 각종 優過指置를 밝힘으로써 20世紀 제 4반기에 있어서의 國家란 다른 資源이란 하나도 없어도 教育받은 부지런한 人力만 있으면 充分하다는 그들의 確信을 表明하였다. 한편 「싱콩」의 독립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母國의 指導者들은 이들의 처사를 비웃고 곧 굶어죽게 될 지경에 이르면 다시 재결합을 원해 올 것이라고 느긋하게 기대며 보려는 자세였다. 이들 指導者들은 都市란 根源의 惡이고 腐敗되고 墮落된 混雜한 곳일뿐만 아니라 再生産할 能力이 없기 때문에 食糧과 原料의 供給處로서 혹은 生産製品의 消費市場으로서 農村地域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곳이라고 믿고 있는 까닭에 背後地가 없는 「싱콩」政府의 經妄性을 나무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事態는 이들 母國의 指導者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엉뚱한 方向으로 發展되어 갔다.

값싼 工業用地, 汚染規制의 寬大性, 各種免稅措置 등 政府가 提供하는 좋은 條件외에 低賃金으로 손쉽게 求할 수 있는 熟練技能工등이 보장되어 있어서 各國投資家들은 줄을 지어 殺到하여 外資導入을 통한 工場建設은 豫想 이상으로 성공하였다. 이리해서 世界市場에서 原料를 사다가 加工해서 많은 利益을 남기고 製品을 輸出해서 벌은 돈으로 食糧을 사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新政府下에서는 종래의 技術者人員의 4분의 1만 가지고도 2배 이상의 道路를 建設할 수 있었고 3분의 1의 建築家만으로도 필요한 住宅의 전부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能率性을 보여주어 母國의 治下에서 不合理하게 就業되어 있는 者들의 大部分이 不必要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었다. 이리해서 從前水準의 就業率을 유지하기 위해 政府는 공공서비스 部門을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獨立전에 비해 社會間接資本 領域에 3배 내지 50배의 投資를 할 수 있게 되어 크게 發展해 나갔다. 이로 부터 高賃金 多就業機會를 찾아 母國의 農民들이 繼續 移住해 오게되어 國境管理를 엄격히 해서 이들을 規制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1인당 GNP는 매년 10%로 늘어나 7년마다 倍增되는 눈부신 發展을 繼續하였다.



이상은 버클리大學의 「위튼」學長이 生存時 筆者도 참석했던 國際세미나에서 發表한 寓話이다.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이 天然資源이 풍부한 農村 背後地를 못 가진 都市國家도 發展할 수 있다는 그의 成長理論이 담겨져 있는 說得力 있는 創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가장 有利한 地點에 投資를 集中시켜야 全體의 成長을 極大化 할 수 있고 또한 制限된 財源으로 發展段階가 다른 全國의 모든 地域을 均等하게 成長시키고자 하는 努力은 非能率的 이거나 絶望的이라는 見解이기도하다. 우리는 이 寓話에서 分權과 發展의 밀접한 相關性, 人力의 資源으로서의 重要性, 企業式 行政目標에 따르는 經濟成長達成度 등 많은 示唆를 不均衡成長論을 背景을 한 樂觀主義의 見解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흔히 限定된 財源으로 投資測定을 할 때 引用되는 概念에 「트라이지」(triage)가 있다. 이것은 軍醫學에서 쓰는 用語이다. 負傷者가 너무 많아 軍醫官들이 患者를 다 돌볼 수 없을 때 어떻게 治療만을 患者를 결정해야 할 것인가? 모든 患者를 3部類로 구분한다. 처음 부류는 治療에 상관없이 死亡을 앞둔 患者, 둘째는 治療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患者, 셋째는 迅速한 治療를 해야만 살 수 있는 患者들이다. 治療만을 患者가 많을 경우 첫째와 둘째는 제쳐두고 셋째部類의 患者만을 治療하는데 熟中해야 한다는 內容이다. 不均衡成長理論은 물론 單純한 「트라이지」의 適用이 아니라 集中으로 治療한 患者, 그러니까 投資效果가 높은 有利한 地點에 集中投資를 하면 나머지 部類의 患者 다시 말해서 餘他的 落後地域도 波及效果를 통해 治療된다는 뜻까지 包含된다. 그러나 이에 는 나후지역민의 時差를 참아야 하는 괴로움이 있고 波及效果에 대한 회의가 있다. 工業中心의 經濟成長을 위한 立地條件이 不利한 米作中心地 農民들이 惡循環의 不利益을 받고 있고 계속 받게 되리라는 不安과 불만을 解消시킬 수 있는 政策의 配慮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農業背後地를 갖고 있지 않는 「싱공」으로서 는 農業國家에서 工業國家에로 탈바꿈하기 위해 不均衡成長策을 써 오고 있는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이 부닥치고 있는 이 問題가 전혀 있을 수 없음이 다행이다. 다만 國家의 發展目標을 經濟性 하나만으로 達成시켜 보려는 努力 뒤끝에 무엇이 副作用으로 왔을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經濟成長」宗敎가 國敎로 되어 있는 「싱공」의 行政은 行여 政治宗敎一致를 통해 劃一化되고, 硬直化되어 多樣性和 柔軟性を 喪失한 동맥경화증을 示顯하고 있거나 않은지? 누적된 외채의 iza상환을 위해 高利短期債인 새로운 負債를 지고 있거나 않은지? 原資材價의 昂騰과 輸出國의 保護關稅障壁으로 海外收支缺損이 惡化되어 가고 있거나 않은지? 勤勞者들의 끈질긴 勞賃引上運動을 통해 低廉한 人力이라는 比較優位性이 喪失되어 外國資本들의 철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나 않은지? 食糧을 위시할 各種 原料의 海外依存에 대해 國家經濟의 海外縱屬이라고 비판하는 젊은이들이 많거나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環境規制를 放置해도 國民들이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싱공」의 높은 所得을 올리는 좁은 땅은 汚染되지 않았는가를 알고 싶다. 위튼 敎授가 살아 있다면 또 한가지 「싱공」의 환경정은 언제 발족했으며 언제부터의 기관이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하에 있게 되었는가를 물어보고 그것이 國敎와의 關係에서 어떻게 解決되었는가를 알아 보고 싶다. *

